

응용행동분석 부모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의 변화*

이도영 (성남시 한미음복지관, 실장)

이성봉**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응용행동분석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응용행동분석 교육에 대한 인식과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BA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모두 수료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ABA 부모교육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응용행동분석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적용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과 운영방법 및 교육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자녀의 문제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기술이 증가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했으며, 자신을 유능한 부모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자녀교육을 위해 응용행동분석 원리와 전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 수료 후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일상생활에서 교육내용을 잘 적용하고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ABA 부모교육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응용행동분석, 발달장애 아동, 문제행동, 부모교육, 실습교육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sblee@b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누구도 자신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을 사람은 없다. 준비 없는 장애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정적 영향을 주며, 부모에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갖게 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양육효능감과 연관이 깊다(이주옥, 2008; 장영은, 2016; Abidin, 1995).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데,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다(최형성, 2002).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와 아동 발달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강혜원, 박지연, 2011; 전혜인 2006).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 및 부모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며(최지영, 양윤란, 김재환, 2004), 부모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나리, 2008). Einfeld와 Tonge(1996)은 지적장애 아동의 41%가 심각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고, 심각한 수준의 텐트럼, 공격행동, 자해행동, 불순응 등을 보고한 경우도 많았다(Bambara & Kern, 2008; Summers, Houlding, & Reitzel, 2004). 특히 12세 전후에 공격행동이 급증해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Tremblay, 2000), 최근 11년간 국내의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관련 연구도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최진혁, 김민영, 2019).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행동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히 유지되기도 한다(Green et al., 2005).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모역할 수행에 좌절을 경험하고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게 된다(신현정, 2014).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자녀 치료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에 해당하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기술을 향상시키는 본질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서는 효과성이 증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은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는 근거기반 방법이다. 체계적인 ABA 기법의 적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대체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 부모가 직접 ABA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도 많다. 박나리(2008)가 자폐 성장에 아동에 대한 국내외 부모중재 연구 21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강의, 시범, 역할놀이, 피드백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았고, ABA에 기반한 개별시도교수(discrete trial training: DTT), 중심축훈련, 우연교수 등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Quinn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ABA 교육을 받은 부모의 개입을 통해서 자녀의 행동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유지시켰으며, 적절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받은 부모가 자녀에게 ABA 기법을 적용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둔 연구들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Aldred & Adams, 2004; Sallows & Graupner, 2005). 때로는 훈련받은 부모를 통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도 있고(Drew et al., 2002), 부모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중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이종희, 2016). 국내에서 진행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자폐성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24편의 부모중재 단일대상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의와 코칭, 피드백을 통하여 부모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행동수정 패키지를 적용하여 자녀의 문제행동 및 대체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박인환, 김유리, 2015). 구체적으로는 김정미(2004)가 ABA 모형에 근거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을 현재 발달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자극과 후속자극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녀 문제행동의 전문적 치료과정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신혜연과 정경미(2014)는 부모교육 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교육까지 실시하면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이 더욱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문제행동 대처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문제에 직접 개입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박순옥, 신현균, 2009). 또한 많은 부모교육이 단순한 강연 형태에 머무르거나(신명선 등, 2015), 6개월 이내 또는 15회기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도 한계다(신혜연, 정경미, 2014). 대부분의 연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국내의 여러 부모 중재 연구를 분석한 결과,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한 연구는 25%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기간이 최대 7주에 불과했다. 외국의 경우 최대 96주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박인환, 김유리, 2015). 이로 미루어보아 지금까지 국내 연구결과들은 부모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자녀의 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2013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ABA 부모대학’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ABA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제공하여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BA 부모대학’의 주요 교육내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증명된 ABA 기반의 중재 방법들로서 강의식 이론교육과 1:1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ABA 부모대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모들의 인식과 자녀 교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BA 부모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ABA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가?

둘째, ABA 부모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변화하였는가?

셋째, ABA 부모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자녀교육 행동이 변화하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로 진행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어서 개별 연구 대상의 독특성, 맥락성 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신재한, 2017). 사례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답을 해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중에서도 연구문제에 가장 일반적인 환경과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전형적 표집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수집하는 최대편차 표집 유형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15주의 이론교육을 80% 이상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최소 10주, 최대 35주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자녀의 나이, 장애유형, 거주지역, 교육기간, 문제행동 등을 고려해 선정하

<표 1> 연구 참여자

	자녀 나이		교육기간(주) 이론/실습	진단명	종결 후 유지기간
	시작연령	현재연령			
참여자1	4.6	8.7	15/34	자폐성장애	26개월
참여자2	9.3	11.8	15/20	지적장애	11개월
참여자3	5.8	8.7	15/10	자폐성장애	24개월
참여자4	9.2	12.3	15/13	지적장애	26개월
참여자5	5	7	15/50	자폐성장애	-
참여자6	4.2	8.1	15/11	지적장애	30개월

였다. 부모교육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에서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장애유형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위 선정기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총 6명의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한 도구로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면담 시 별도의 표준화된 척도나 검사도구를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연구도구에서 주로 확인하고자 하는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질문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ABA 부모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둘째, ABA 부모교육이 양육효능감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물었다. 개별 질문을 작성할 때 최

<표 2> 면담질문지 개요

질문주제	질문내용
ABA 부모교육 전반	1. AB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받기 전과 후에 생각의 변화가 있는가? 2. ABA 부모대학 교육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3. ABA 부모대학 교육이 본인과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 4. ABA 부모대학 교육내용과 방법은 어떠했는가? 5. ABA 부모대학을 다른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자녀교육에 ABA의 구체적 적용	6. 가정에서 주로 중점을 두는 자녀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7. ABA 부모대학 교육 이후에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8.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실제로 적용한 방법이 있는가? 9. 자녀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 있는가? 10.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 있는가? 11. 교육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는 ABA에 얼마나 능숙하다고 생각하는가?
양육효능감의 변화	12. 본인의 자녀 양육기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13. ABA 부모대학 교육 이후 자녀 양육기술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예방과 대처)을 잘할 수 있는가? - 아이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 아이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가? - 전반적으로 좋은 부모로서의 양육기술이 있는가?
추가 질문	14.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가?

형성(2002)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주요 요인 4가지, 훈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전반적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였다.

셋째, 교육과 문제행동 지도에 ABA를 적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면담질문지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ABA 부모교육

2013년 7월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ABA 부모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S시의 H장애인 복지관에서 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ABA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론교육은 평균 30명 정도에게 강의식으로 15주간 매주 2시간 30분씩 실시했다. 실습교육은 주1~3

<표 3> 이론교육 주요 내용

주차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교육내용 개요 및 사전 설문
2	ABA 소개	- 조기집중행동중재(EIBI)와 Lovaas 연구 소개 - 행동주의와 ABA
3	발달장애 아동 이해	-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 및 중재
4	행동원리	- ABA 기본원리 - 강화, 벌, 소거
5	선행사건 중재	- 선행사건 중재의 중요성 - 환경의 재구성 연습
6	후속결과 중재 (행동증가)	- 행동 증가의 원리 - 강화, 강화물, 강화계획, 토큰경제, 행동계약
7	후속결과 중재 (새로운 행동)	-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 - 행동형성, 행동연쇄, 과제분석, 촉구와 용암
8	후속결과 중재 (행동감소)	- 행동 감소의 원리 - 소거, 차별강화, 정적별/부적별, 타임아웃, 반응대가
9	문제행동중재	- 문제행동 기능평가 및 기능별 대응
10	중간평가	- ABA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도 점검(지필평가)
11	DTT	- DTT 소개 - 학습전준비기술 교육(관련 영상 보기)
12-14	체험실습	- 자녀와 함께하는 DTT 연습
15	데이터 수집	-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 그래프 그리기

회씩, 10~40주 동안 부모와 자녀의 1:1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1:1 실습교육은 2~3명의 ABA 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강사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박사수준의 ABA 전문가 1명과 특수교사 1명이 담당했고, 현재는 30년 이상 경력 ABA 전문가 1명과 ABA를 전공한 특수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론교육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의 특성과 ABA 기본원리 및 구체적 전략으로 강화, 별, 소거 등의 원리와 토큰경제, 행동계약, 타임아웃 등의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습전 준비기술, 기능적 의사소통기술, 기초학습기술, 사회성기술 등이다. 실습교육은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를 위한 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DTT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이 진전되면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자연적 환경 교수(natural environment teaching: NET), 그룹치료, 놀이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표 3>은 이론 교육 내용 예시다.

2) 면담질문지 개발

면담질문지 전체 내용은 응용행동분석학과 교수 1인에게 의뢰해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대한 질문은 상담심리학 박사 1인에게, 교육과 문제행동 지도에 ABA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BCBA-D 1인에게 추가적인 검토를 받았다. 질문지 작성 후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 1인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했다. 전체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추후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으로 면담자의 피드백을 거치면서 일부 질문을 수정하여 질문과 답변이 명확해지게 조정하였다. 조정된 내용은 다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면담질문지를 완성하였다.

3) 면담 실시

이 연구를 위해 유선 혹은 대면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동의하는 부모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일정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지정하였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현재 원거리에 거주하여서 대면이 어려운 경우는 일단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추가로 유선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전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미리 제시하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1차 또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 먼저 <표 2>에 있는 질문주제를 알려주고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 말하도록 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과 언급 양이 많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확장시켰다. 대화가 중단되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면, 크게 환기시키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은 질문지에 있는 것과 동일한 문장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며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시했다. 다만, 양육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세부요소를 모두 질문하여 객관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4) 전사본 작성

이 연구를 위해 실시된 면담은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모든 전사본은 면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본인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담자의 의견을 인터뷰 내용에 반영하여 전사본을 최종 완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 6명의 면담 내용은 A4용지로 총 53매 분량으로 전사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뒤 연구 참여자가 전사된 내용을 읽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전사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후 개방코딩을 시작하였다. 우선, 전사한 자료의 전반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전체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내용을 유사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유목화하고, 유사한 내용을 범주로 묶고 구조화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언어로 표현된 것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고 조직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위범주에서 하위범주로 구조를 계층화하였으며 상위범주에는 중심개념을 넣고 하위범주 아래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개의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5. 타당도와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심층면담 질문지를 개발 후 동일한 부모교육 경험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을 수정하고 응용행동분석학과 교수 1인에게 적합성 검토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의 거주지역과 교육 기간 그리고 자녀의 장애 유형과 나이 등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차이점을 가진 경우는 배제하여 연구 결과가 치우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서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답변내용 중 인용된 부분의 주된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내용이 의미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을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복질문하거나, 같은 면담 회기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하였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일부 발언의 맥락이 모호하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추가 확인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 중복 질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보충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장기간 관계를 맺어왔고 교육 일부를 담당한 것이 면담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연구 참여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설득도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고 진솔한 응답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함을 전달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 시부터 향후 본 연구자에게서 추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적은 원거리 거주자나 오랜 기간 교류가 중단되었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공개하였고,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발언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다.

III. 연구결과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BA 부모교육이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범주화하고 의미 단위를 정리하였다. 주요 범주는 ‘ABA 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의 전반적 변화’, ‘양육효능감 변화’, ‘자녀교육 방법 변화’이며, 하위범주는 총 13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하위범주 별로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추출한 의미단위는 총 47개이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ABA 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의 전반적 변화	양육효능감 변화	자녀교육 방법 변화
↓	↓	↓	↓
- ABA 교육 참여 동기 - ABA에 대한 인식 변화 - ABA 부모대학에 대한 현재의 생각 -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 긍정적 심리 변화 - 가족 관계의 개선 - 문제행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 양육기술 및 양육 스트레스 변화 - 양육효능감 하위 요소의 변화	- ABA의 구체적 적용 - 주요 교육목표 - 문제행동 중재 - 일반화와 장기적 유지

<그림 1> ABA 부모교육 후 부모의 변화에 대한 범주 및 하위범주

<표 4> ABA 부모교육 후 부모의 변화에 대한 범주와 의미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ABA 교육에 대한 인식	ABA 교육 참여 동기	문제행동 개선(A, C, D, E, F) 양육기술의 향상(B, D, E) 주변의 권유(A, D)
	ABA에 대한 인식 변화	ABA에 대한 인식 변화 낮음(C, D) 매우 효과적인 방법(A) 자폐아동과 문제행동 중재의 필요(C, D) 부모-자녀 애착에 관한 고민(A, B, C)
	ABA 부모대학에 대한 현재의 생각	가장 도움이 된 교육(A, B) 이런 교육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음(C) 필수적인 부모교육(D, F) 기대 언덕이 생김(D, E) 타인에게 추천(C)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이론교육이 생각보다 중요했음(A, B) 실습교육이 세밀한 적용을 가능케 함(B, C) 숙련된 슈퍼바이저가 중요함(A, B, C)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 증가(C, D) 교육을 통해서 향상되었음(C, D)
부모의 전반적 변화	긍정적 심리 변화	전반적인 행복감 증가(A, B) 부모로서의 성취감 증가(D) 사용하는 용어의 변화(A, B)
	가족관계의 개선	남편과의 관계 개선(A, B, D) 남편의 긍정적 개입 증가(A, D) 비장애 자녀와 관계 개선(A, B, F)
	문제행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자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B, D)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A, B, C) 여유를 갖게 됨(E)
양육효능감 변화	양육기술 및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신의 양육기술에 자신감(A, B, C, E, F) 전문가의 긍정평가(B) 양육스트레스 증가(D)
	양육효능감 하위요소의 변화	문제행동 예방과 중재기술 향상(A, B, E, F) 의사소통 기술 향상(A, B, E, F) 학습지도 기술 향상(B, C, E, F) 자녀의 행동을 잘 이해하게 됨(A, B, C, D)

<표 4> ABA 부모교육 후 부모의 변화에 대한 범주와 의미

(계속)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자녀교육 방법 변화	ABA의 구체적 적용	행동연쇄, 행동형성, 과제분석(A, B, C, D) 차별강화 및 소거(A, B, F) 최소한의 벌 전략 사용(E, F) 우연교수, 지연된 촉구(A, C, E)
	주요 교육목표	일상생활훈련(A, B, C, D, E, F) 학습기술 교수(B, C, E, F) 사회성 교육(A, B, C, E, F)
	문제행동 중재	기능 기반 중재(A, B, C, D, E, F) 관찰을 통한 기민한 대응(A, B, E) 전문가와 협력 잘됨(B, E, F) 예방중심의 전략(B, C, F)
	일반화와 장기적 유지	항상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있음(A, B, C, E) 행동원리의 일상적 적용(A, B, C, D, E, F) 자연적인 강화전략 사용(B, F)

* A~F는 연구 참여 부모의 이니셜을 의미함.

1. 응용행동분석 교육에 대한 인식

1) 응용행동분석 교육 참여 동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ABA 부모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의 발현 또는 적응행동의 결핍을 꼽았다. 자녀가 부적응 행동을 보일 때 부모로서 적절한 대응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부모교육을 받게 된 이유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막막함’, ‘암담함’, ‘망망대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 전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할 때가 막막할 때였어요. 그전까지는 아이를 다루지 못하고 아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제 내가 좀 여유가 돼서 내가 애를 다뤄 봐야지 하고 접근을 했는데, 내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여자 B)

2) ABA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전에 비해서 ABA에 대한 인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교육 후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나 교

육 후 이런 고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게 자폐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전 어린 나이에 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략) 너무 자폐나 문제행동에만 한정되었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참여자 C)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참여자 D)

3) ABA 부모대학에 대한 현재의 생각

이 연구의 독립변인 ‘ABA 부모대학’에 대해서 모든 연구 참여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 ‘한줄기 빛’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교육이 자신과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본 교육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방법이 ABA예요. (참여자 A)

ABA 부모대학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전에는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제가 많이 변했어요. (참여자 B)

4)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이론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실습교육을 받거나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할 때 이론적 지식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물론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실습교육도 중요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론교육 받을 때는 이런 것도 굳이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 알아야겠더라고요. 실습할 때 필요했었어요. (중략) 그런데 확실히 이론보다는 실습이 중요하긴 했어요. (참여자 B)

교육내용은 전부 다 필요했어요. 저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모두 좋았어요. (참여자 D)

2. 부모의 전반적 변화

1) 긍정적 심리 변화

교육 후 전반적으로 부모의 심리상태가 안정되고 자녀 및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기쁨’, ‘행복’, ‘너무 좋아요’ 등 긍정적인 어휘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참여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요즘 행복해요. (중략)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맨날 맨날 힘들거야.’하면서 우울한 생각에 빠지면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해요. (참여자 A)

저는 이거를 배우기 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정말 달라졌어요,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참여자 B)

2) 가족 관계의 변화

남편이나 비장애 자녀와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설명이 많았다. 가족의 전반적인 관계 향상이 부모의 만족도와 행복을 긍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남편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지가 된다고 말하였다.

아이 아빠한테도 할 말이 없어서 하루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OO이 덕분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애가 그전에는 이걸 못했잖아, 근데 이제 이걸 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도 많고요. (참여자 A)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남편하고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참여자 B)

3) 문제행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예전에는 막연히 추측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의 행동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앞뒤 상황을 정확한 말로 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이 예측 가능해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남 눈치만 보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참여자 A)

아이의 행동 자체를 의사소통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3. 양육효능감의 변화

1) 양육기술 및 양육스트레스 변화

본인의 양육기술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스스로 ‘괜찮은 엄마’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다만, 자녀의 기능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양육효능감이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아이랑 소통하는 능력은 4.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훈육능력은 5점 만점에 4.5점은 되는 것 같고요. (중략) 나 괜찮은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웃음). (참여자 A)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삶이 달라졌죠. 그 힘든 거, 어렵고, 아이를 다루지 못해서 어렵고 무능감만 느꼈는데, 이걸 배우면서 유능감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참여자 B)

예전에는 100점 중 40점이었다면 80점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F)

2) 양육효능감 하위요소의 변화

대부분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소에도 만족스러운 향상을 표현하였다. 훈육기술은 문제행동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였다. 학습기술보다는 일상 생활기술의 지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고, 교사, 치료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예민하게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B)

아이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F)

4. 자녀교육 방법 변화

1) ABA의 구체적 적용

부모들이 행동 원리에 근거하여 다양한 ABA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람직해 보였다. 다양한 강화제와 강화계획을 사용하고, 행동형성, 행동연쇄, 과제분석 등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행동에 차별강화와 소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 전략은 덜 사용하였다.

아이와 생활하며 거의 모든 것들이 ABA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는 칭찬해 주기, 새로운 과제를 가르칠 때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과정을 세분화하여 가르치기 같은 거 전부 다요. (참여자 E)

2) 주요 교육목표

부모들은 주로 일상생활훈련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샤워하기, 머리감기,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예절, 혼자 학교 가기 등을 교육하고 있었다. 학습기술은 우선순위가 낮았는데, 학교나 치료실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성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일상생활훈련, 신발 신기고 벗기고, 옷 입히고, 화장실 데려가고 하는 것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그런 걸 세분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쪼개고 쪼개서 지도했어요.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이랑 대근육 활동도 했어요. (참여자 F)

3) 문제행동 중재

대부분 크고 작은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나, 지금은 문제행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교육 전에 있었던 문제행동들은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다른 가족 및 전문가와 일관성 있는 중재를 통해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다.

행동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 자체를 의사소통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뭔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예전에는 욕하고 화가 났다면, 지금 ‘애가 왜 이럴까?’라는 원인을 먼저 찾게 됐고……. (참여자 C)

4) 일반화와 장기적 유지

부모들은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교육받은 내용을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 행동원리에 맞게 잘 응용하고 있었다. 항상 교육목표를 머릿속에 상기하고 전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다만, 기록지에 행동을 기록하거나 계획서를 수립하는 행동이 적은 것은 아쉬웠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에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획을 종이에 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서 그런 과제분석이 이뤄졌죠. (참여자 A)

행동의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랑 과제분석, 사회적 강화 이런 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ABA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받은 부모들의 인식과 자녀교육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ABA의 효과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적용 가능한 범위도 예전보다 더 넓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전에는 ABA 적용 대상을 ‘자폐성장애’, ‘영유아’, ‘문제행동’에 국한하여 바라봤다면, 교육 후에는 배우자, 비장애 자녀 등 이전보다 더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만족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 특히, 남편의 지지가 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의미 있는 결과다(윤지성, 정은희, 2017; 이지현, 2013; 최말옥, 2012). ABA를 비장애 자녀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고, 결국 가족 전체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BA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행동의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만큼 타당한 결과다(Cooper, Heron, & Heward, 2007).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ABA 부모교육을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필수적 교육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다른 장애 부모들에게 본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본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기댈 언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유사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습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는데, 이것은 행동 변화를 위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강조한 연구(Cooper et al., 2007)와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박계신, 2016), ABA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효과성 비교 연구(신혜연, 정경미, 2014) 등과 유사한 결과다.

셋째, 부모들은 교육 이후에 자신과 가족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BA 부모교육이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요하였고,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가족 전체의 행복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성공적인 부모교육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감정적 만족을 가져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지원, 2017; 박계신, 2016). 이것은 대중적인 ABA 부모교육이 장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양육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녀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 전에는 스스로 양육기술이 낮다고 생각하였지만, 부모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녀의 행동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제로 다양한 행동문제를 해결했거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김선경, 송유하, 2017; 김정미, 2004; 박인환, 2015; Aldred et al., 2004; Drew et al., 2002; Sallows, & Graupner, 2005). 또한,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그룹 기반의 행동주의적 부모교육을 실시하자 부모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Sofronoff와 Farbotko(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자녀의 기능 수준 향상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자녀교육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전문가와의 소통도 원활하였다. 즉, 자녀의 향상이 부모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작은 성취에도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조언, 안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가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다(Walker-Hirsch, 2009). 이런 지속적 노력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기술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고 예측 가능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양육효능감이 올라간 것이다. 이것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선경, 송유하, 2017; 박계신 2016; 신혜연, 정경미, 2014; Coleman & Karraker, 1997; Evans et al., 2003)에서 보여준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자녀의 기능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양육스트레스가 일부 증가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는 자녀교육에 ABA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일상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인 행동형성, 행동연쇄, 과제분석, 촉구, 용암, 우연교수, 모델링 등이 주로 쓰이고 있었다. 행동 전략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강화, 소거, 벌 등 ABA 원리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동 감소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정적 벌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주로

차별강화와 소거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부모를 위한 특정기술의 심화교육 못지않게 행동원리에 근거한 전반적 교육도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교육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교육받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목표행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행동의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계획적인 중재 외에도 우연교수, 느슨한 교수 등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ABA 부모교육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ABA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양육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효능감을 증가시켰다. 또한 가족 전체의 상호관계와 전반적인 행복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ABA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독립변인인 ‘ABA 부모대학’이 여러 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기간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론교육 내용과 교재 및 사례, 영상자료에 변화가 있었고,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실습교육이 이뤄졌다. 즉 철저히 통제된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의도적 표집을 하였으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둘째,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ABA 부모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통한 교차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모교육 중도 탈락자에 대한 원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후속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의 진정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박지연 (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김선경, 송유하 (2017). 자폐 범주성 장애 영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9(3), 291-313.
- 김정미 (2004). 응용행동분석 모형에 근거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적용 효과. *특수교육*, 3(2), 85-107.
- 김지원 (2017). 문제해결전략중심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위험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인식,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계신 (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응용행동분석 기반 중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309-341.
- 박나리 (2008).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부모 참여 중재 연구 동향 분석: 1996년-2008년까지의 국내외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8(2), 151-177.
- 박순옥, 신현균 (2009). 심리건강 향상에 초점을 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중도, 중복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29-345.
- 박인환, 김유리 (2015). 자폐범주성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중재 연구의 분석: 국내외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5(4), 261-286.
- 신명선, 김효정, 장현진, 전희숙 (2015).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실태 및 대처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24(3), 121-135.
- 신재한 (2017).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와 실제*, 서울: 이모션북스.
- 신현정 (2014).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체험의 의미. *가족과 문화*, 26(2), 80-125.
- 신혜연, 정경미 (2014).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행동주의적 부모교육의 효과성 연구: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33(2), 221-242.
- 윤지성, 정은희 (2017). 자폐성장애 중 ·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9(2), 269-293.
- 이종희 (2016). 가정에서 실시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아스퍼거 증후군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효과. *행동분석 · 지원연구*, 3(2), 65-84.
- 이주옥 (2008). 일반유아 어머니와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403-428.
- 이지현 (2013).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영은 (2016). 어머니 자기효능감,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8(4), 1-29.
- 전혜인 (2006). 부모결연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말옥 (2012). 강점관점으로 본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325-355.
- 최지영, 양윤란, 김재환 (2004).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16.
- 최진혁, 김민영 (2019).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메타분석. *행동분석 · 지원연구*,

6(2), 101-130.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Abidin,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Aldred, C., Green, J., & Adams, C. (2004). A new soci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pilot randomised controlled treatment study suggesting effectivene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8), 1420-1430.

Bambara, L. M., & Kern, L. (2008).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계획 및 실행(박지연, 박현옥, 윤선아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05)

Coleman, P., & Karraker, K. (1997). Self-efficacy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Cooper J. O., Heron T. E., & Heward W. L. (2007). *Applied behavior analysi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Drew, A., Baird, G., Baron-Cohen, S., Cox, A., Slonims, V., Wheelwright, S., ... & Charman, T. (2002). A pilot randomised control trial of a parent training inter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Preliminary finding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1(6), 266-272.

Einfeld, S. L., & Tonge, B. J. (1996). Population prevalence of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I: Epidemiological finding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0(2), 99-109.

Evans, M. F., Boothroyd, R. A., Armstrong, M. L., Greenbaum, P. E., Brown, E. C., & Kuppinger, A. D. (2003).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in-home crisis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ogram outcom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1(2), 92-102.

Green, V. A., O'Reilly, M. O., Itchon, J., & Sigafoos, J. (2005). Persistence of early emerging aberrant behavior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6(1), 47-55.

Quinn, M., Carr, A., Carroll, L., & O'Sullivan, D. (2007). Parents Plus Programme 1: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for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0(4), 345-359.

Sallows, G. O., & Graupner, T. D. (2005). Intensive Behavioral Treatment for Autism.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10(6), 417-438.

- Sofronoff, K., & Farbotko, M. (2002). The effectiveness of parent management training to increase self-efficacy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Autism*, 6(3), 271-286.
- Summers, J. A., Houlding, C. M., & Reitzel, J.-A. M. (2004). Behavior Management Services for Children with Autism/PDD: Program Description and Patterns of Referral.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2), 95-101.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alker-Hirsch, L. (2009).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신현기, 정진옥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출판년도 2007)

A Study of Parents' Perceptions and Changes in Children's Education through the Applied Behavior Analysis Training for Parents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ee, Do Yeong · Lee, Sung B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parents' perception of ABA education and the changes in their education of children after conducting ABA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ix parents with children who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ad received ABA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They were given in-depth interviews on ABA parent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ness of ABA was positively recognized,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was more widely recognize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s contents, its operation methods, and the education's results. Second, the parent's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generally. They looked objectively at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showed positive psychological status as their family relations improved. Third, the parent's ability to raise children improved significantly. Parenting skills increased, parenting stress decreased an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mselves as competent parents. Fourth, ABA principles and strategies were routinely used for children's education. Although an average of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ir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were well applied and maintained throughout their everyday lives. These results show that ABA training for parents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arent's perception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Keywords : Applied Behavior Analysis,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blem behavior, parent intervention, parent education, practice training

게재 신청일 : 2019. 11. 13

수정 제출일 : 2019. 12. 16

게재 확정일 : 2019. 12. 23

* 이성봉(교신저자) : Dept. of Special Education, Baekseok Univ.(sblee@bu.ac.kr)